

“위기의 대학, 경험 바탕으로 소통하며 극복할 것”

한준태 예비 후보자

정리: 이서림 기자 sllee1001@knu.ac.kr

Q1. 예비 후보자 등록 계기는.

최근 대학들은 위상 강화를 위한 투자와 등록금 동결로 재정적 어려움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 학생 유치와 구성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거의 교육과 연구를 고집하는 대학은 도태된다. 지난 몇 년간 공인된 평가에서 우수한 성취를 이뤘지만 한 번 더 도약해야 한다. 이러한 시대의식과 소명으로 나서게 됐다. 우리학교에서 학생과 교수로 35년을 보내 무한한 책임감을 느꼈다. 결단과 함께 스스로의 능력에 끊임없이 자문했지만 행정 경험과 소통의 리더십으로 도약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우리학교 대내·외 조직을 이끌며 문제해결형 리더로 훈련됐다. 또한 시스템에 의한 행정을 추구해왔다. 학장, 원장, 그리고 서울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 SPACE21 사업단장, 후마니타스칼리지 대학장 직무대행, 한국언론학회 회장

**학력**

경희대 신문방송학과(정치학 학사), 미국 텍사스대(오스틴)(언론학 박사)

주요경력

경희대 대외부총장, 경희대 서울부총장, 경희대 정경대학 학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대학장 직무대행, 한국언론학회 회장

- 수입원 다양화와
지출효율화로 재정 확충

- 교양 교육 혁신 추진,
융합·실습 확대

- 국제 교류·연구 기회 확대,
설비 개선 위한 플랫폼 구축
- 총장실을 열린 공간으로,
문제 사안 및 제안 경청할 것

할 것이다. 감사행정원의 활동을 강화해 원인과 책임을 적극적으로 규명할 것이다.

Q11. 거액의 지원금을 받고 시행 중인 사업(예 : LINC+ 사업, 소프트웨어중심대학)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한 방침은.

대형 국고사업 및 연구비 수주는 교육역량 강화 및 연구의 질 제고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최근 대형 국고지원 사업들에 잇따라 선정돼 위상이 높아짐과 동시에 재정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대형 국고지원 사업 수주를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참여 구성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각종 국고지원사업의 지원금은 교육역량 강화, 교육여건 개선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다. 중간평가로 단계별 목표 달성을 여부도 직접 점검할 것이다. 향후 BK21 후속 사업 등 대형 국고지원 사업이 예정돼 있으므로 본부에 전담팀을 구성해 제안서 제출이 완료될 때까지 충분한 지원을 할 것이다.

“

**부총장 경험 바탕으로 누구보다
우리학교의 안팎을 잘 알게 됐다.
모든 주체가 힘을 합쳐 만들
'경이로운 경희'를 상상해본다**

”

Q2. 최우선 정책은.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첫째, 교육역량 강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걸맞은 창의, 융합, 실천적인 인재를 배출할 것이다. 둘째, 연구력 제고를 위해 인적, 제도적, 설비 측면의 자원들을 적시적소에 제공할 것이다. 셋째, 재정 건전성을 위해 다양한 수입원 창출과 지출 효율화를 이룰 것이다. 넷째,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위해 기후, 환경, 평화 등 그동안의 지구적 과제들을 문화세계 창조라는 창학 이념에 입각해 수행할 것이다.

Q3. 재정 확충 방안은.

대학 재정의 건전성은 수입원의 다양화와 지출 효율화에서 확보해야 한다. 우선 대형국고지원 사업과 연구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연구진의 참여를 지원할 것이다. 또한 미래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우수 연구교원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해 연구기금도 조성할 것이다. 기부금 확충을 위해 다양한 창의적 목적성 모금을 개발할 것이다. 특히 본부 차원에서 동문네트워크를 보다 활성화하고 기업체나 독지기를 찾을 것이다. 등록금 문제도 구성원 간 대타협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다. 동시에 대학 시스템 간 소화, 조직과 인력 운영의 합리화도 추진할 것이다. 융합교육을 위한 신

규 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전공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다. 산학연계 네트워크를 강화해 현장체험과 실습의 기회를 확대할 것이다. 또한 교육여건 문제를 수렴해 시설개선 리스트를 만들고 단계적으로 보수 및 교체 작업을 실시할 것이다.

Q6.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구체적 지원책은.

유학생은 우리학교의 중요한 구성원이다. 학업 지원, 유학생 모임 활성화, 전담인력 배정과 예산 증액을 추진할 것이다. 학습 멘토를 확대하고 외국인 유학생이 과제 및 논문, 발표 원고 등을 작성하는데 직접 도움을 주기 위한 'Writing(영어, 중국어, 한국어) 센터'를 설립하고자 한다. 또한 유학생이 많은 학과에 전담인력과 예산을 실현성 있게 배치할 것이다.

Q7. 연구 역량 강화 방안은.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구성원에게 필요한 자원을 적절하게 제공해야 한다. 인적자원 측면에서 해외 석학과의 국제 교류 및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다. 교내에서도 융·복합 연구 기회 확대, 연구 설비의 공유, 데이터 공동 수집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연구 조직을 종합하는 연구부총장직 신설도 검토할 것이다.

또한 연구비 수주에서 정산에 이르는 행정 서비스 전반을 개선할 것이다. 설비 측면에서도 연구와 실험 공간을 확충하고 장비 공유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다. 각 캠퍼스에 설치될 'Writing 센터'와 'Data 센터'는 연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

을 제공할 것이다.

Q8.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방안은.

대학원 활성화를 위해 석·박사 연계과정 확대, 장학금과 연구수당 확충, 산학연계 연구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다. 석·박사 연계과정을 대부분의 학과로 확대 실시해 학문 후속세대가 단기간에 성과를 내고 사회에 진출하도록 도울 것이다. 장학금 수혜 대상을 넓히고 연구수당을 확대해 대학원생이 학업에 전념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산학연계 연구 활성화로 대학원생의 관련 기업체 진출을 도울 것이다.

Q9. 소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을 펼치는 것은 민주적 대학 운영에 필수적이다. 각종 회의나 위원회에 구성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할 것이다. 또한 누구나 정책제안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도록 총장실을 '열린 공간'으로 개방할 것이다. 모든 구성원이 찾아와 고충을 털어놓는 곳으로 바꿀 것이다. 구성원 단체와 소통 채널을 상시 가동하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안을 들을 것이다. 또한 교내 언론을 통해 정책을 수시로 알리고 문제 사안이 발견될 시에는 즉각 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들을 것이다.

Q10. 권력형 인권침해 방지 정책은.

성폭력이나 성희롱 문제, 갑질 등은 끊과할 수 없으며 사후처리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한 문제다.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감사와 징계를 염격하게 적용할 것이다. 성평등상담실 등 관련 기관을 개편하고 재량권을 강화

Q12. 서울캠퍼스 부총장 재임 당시 이룩한 성과와 한계점은 무엇이며 이를 토대로 대학 경영을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궁금하다.

부총장 재임 시절 우리학교의 위상과 구성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국내·외 최상위권 우수 연구자를 영입하고 연구업적에 따른 과감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 연구 역량뿐 아니라 교육과 국제화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그 결과 QS와 국내대학평가에서 높은 순위에 올랐다. 또한 장학금 확대와 학생 복지 사업 투자를 통해 국가고객만족도평가(NCSI)에서 대학 분야 2위를 유지하고 있다. 후마니타스칼리지 대학장 직무대행을 겸하며 교양교육 혁신을 추진했고, 출범에 기여한 객원교수의 단계적 전임교수 전환도 이뤄냈다. SPACE21 사업단 책임직을 맡아 행복기술사와 단과대 신축 등 SPACE21 1단계 공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당시 교수의회, 노동조합, 학생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대화 채널을 가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안에 구성원의 공감대를 충분히 얻지 못했다고 느꼈다. 수년간의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이 한정돼 있어 적기에 교육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 이 경험을 통해 누구보다 우리학교의 안팎을 잘 알게 됐다. 경희의 역사와 정신은 물론 캠퍼스 곳곳에 있는 구성원들의 생각까지 알게 됐다. 모든 주체가 힘을 합쳐 만들어낼 '경이로운 경희'를 상상해 본다. 자랑스러운 경희 70년의 성취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더 큰 도약을 이끌어내겠다.

Q4.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의 방향과 원칙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부총장 재임 당시 청소노동자 135명이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우리학교의 조직문화와 운영방식에는 공감과 민주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 대학 운영진은 물론 교수, 학생, 직원 대표들이 참여하는 '대학노동위원회'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Q5. 교육 혁신의 핵심은 무엇인가.

창의, 융합, 실천의 세가지 키워드가 핵심이다. 창의력 향상을 위해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양 교육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다. 융합교육을 위한 신